

# 층간흡연 규제 강화...이래도 피울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신고하면 경비원 출동...강제 조사 어려워 우려도

#1. 광주 한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27)씨는 최근 밤에 잠을 자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장실 환풍구에서 담배 냄새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없던 김씨는 1층 계수판에 '화장실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써붙여 놓고 관리실에 항의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늘 환풍기를 켜놓고 생활하고 있다.

#2. 남구의 한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최모(여·58)씨도 최근 관리사무소에 흡연 관련 민원을 넣었다. 늦은 오후에 집안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를 맡은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배란다 흡연금지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지만 최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담배 냄새를 맡았다.

11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내

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배란다,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실내 흡연과 미세먼지 거동 특성 연구'를 살펴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 2개비를 피우면 5분 내 외진 곳과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고 1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나와 있다.

법 신설 조항(제20조의 2 간접흡연의 방지 등)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이 주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흡연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한 신설 조항의 2항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준 세대도 지목된 주민이 반발하며 부인할 경우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강제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광주 남구의 한 금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아파트 내 흡연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안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흡연 세대를 적발해도 자체를 부각할 수는 있지만 집안까지 들어가서 진짜 담배를 피웠는지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12·12때 신군부 막다 숨진 정선엽 병장 동신고 총동문회 재조명·명예회복 나서

기념사업회 꾸리고

추모비 건립·훈장 추서 추진

"시간은 흘렀지만 고인의 명예는 아직도..."

광주 동신고 졸업·재학생들은 매년 12월12일이면 가슴 한 칸이 먹먹하다. 동신고 7회인故 정선엽(당시 23세·국방부 헌병대 소속·사진) 병장이 지난 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지하버커 초소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무력진압에 나선 1공수여단의 총탄에 쓰러져 간 날이기 때문이다.

신군부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무력진압한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수령을 받고 육군본부에 갔다가 이를 저지한 정 병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체대 3개월을 앞둔 시절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긴 했지만 고인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다한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예회복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

동신고 총동문회는 올해 고인을 '기억해야 할 동문 1호'로 선정할 뒤 그를



위한 기념사업회를 꾸렸다.

바로 세우지 못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죽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 신군부에 맞선 반란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고인은 1980년 3월 26일 유족들의 한맺힌 절규 끝에 뒤늦게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총동문회는 지난 5월 초 모교 교정에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했다. 이 시수엔 용기와 인내, 의지와 노력, 정의 등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길 희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병태(62·동신고 6회) 광주대인지과의원 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이 된 그날, 광주의 한 젊은이가 숭고하게 산화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도 그를 단순히 희생자로만 기억하고 있다"며 "그를 위한 추모비 건립과 훈장 추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사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도교육청, 시 지역도 확대...운영비·인건비 전액 지원키로

지자체 식품비 부담이 관건

순천·나주시는 지원 수용

전남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기존 읍·면 지역에서 내년부터는 여수·목포 등 시 단위 지역을 포함한 전체 고교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장문제 도교육청의 선거 공약인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역은 목포·여수·나주·순천 등 4개 시(대상 학생 2만9795명) 등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읍·면(광양 포함)지역 830개교 중 94.5%인 785개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나머지 4개 지역 45개교에 대한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 중 인건비·운영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도교육청이 운영비·인건비·식품비를 모두 부담하는데, 나머지 4개 지역에 한해선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가 식품비만 부담해 달라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광주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시교육청이 운영비·인건비(100%)와 식품비(30%)

를, 광주시와 각 구는 식품비의 7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식비 추가 재정 비용으로 2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일부 지자체의 급식비(식품비) 지원이 전제조건이다.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 예산으로 139억원을 맡기로 했고,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해야할 식품비는 12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그간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전액을 부담해왔으나 재정 압박이 심화하면서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에 급식지원 중 식품비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식품비 지원 요청에는 나주·순천은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는 재정의 50%를, 목포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목포와 여수가 도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차질을 빚게된다.

올해 전남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1615억원으로 지난 2015년 1525억원보다 90억원 늘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울산 학생들의 점심 급식은 랍스터...광주·전남은 인제썸?

울산시 울주군 세인고등학교는 지난 8일 점심 급식에 랍스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는 시교육청 지원금과 학생 부담금 외에 자체적으로 1인당 5000원 이상 예산을 지원해 식단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 사립학교 채용 비리 수사 의뢰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측의 금품 요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

씨와 부인 B씨를 광주지방경찰청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수사 의뢰했다.

전 이사장인 B씨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공동 위탁채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일부에게 수업실연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며 합격시켜 주겠다고 수천 만원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 대법 "5·18 왜곡' 지만원 관할법원 이송 안돼"

내달 17일 광주고법서 재판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5·18 단체 및 당사자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 지씨의 '관할법원 이송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했다.

지씨는 "광주 대부분 법원은 지역 정서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5·18 단체 등은 지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올해 8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휴게텔서 다른 손님 지갑·항수에 속옷까지 '슬쩍'



○...광주의 한 휴게텔에서 다른 손님의 속옷 등을 훔친 20대 미용사가 경찰서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0)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5시15분께 광주시 동구 한 휴게텔 수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문모(30)씨의 옷장 열쇠로 잠금장치를 풀 뒤 속옷·항수·담배를

포함 현금 22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

○...박씨는 수면실 안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났는데, (문씨의)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16(화)

##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사회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23(화)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 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